

유아교사의 음악수업과 교수방법에 대한 실제적 연구

윤 지 영* · 임 승 렬**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심층면담을 통해 음악교육내용을 어떻게 계획, 실행 평가하는지 살펴보고, 유아교사의 음악수업 과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는 음악교육을 '새 노래 부르기'와 '전희활동' 및 '주의집중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교사의 음악수업은 실제로 주로 대그룹 시간 중에 '새 노래 부르기'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악기연주와 신체표현도 새 노래와 관련된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업에 대한 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음악교육내용지식의 부족 및 교수방법의 어려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려움, 교사 연수 참여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유아음악교육, 음악교육내용, 음악교수실제

차 례

I. 서론

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 참여자 | 2. 자료수집 |
| 3. 자료 분석 및 해석 | |

III. 연구 결과

1.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2. 유아교사의 음악교수실제
3. 유아교사의 음악교육 실행에 대한 어려움

IV. 논의 및 결론

*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교신저자(sylim@duksung.ac.kr)

I. 서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리에 민감하며 유아들의 일상생활은 소리나 음악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것이 듣기 활동이고 어떤 것이 노래 부르는 활동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유아의 음악적 경험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소리와 음악이 유아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변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유아에게 다양한 소리탐색의 기회나 음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의 음악적 경험은 유아 개인의 음악성 발달 및 표현적 즐거움을 증진시키고 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인지 및 사회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시각적, 청각적, 운동적 표현양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영연, 2009; Campbell & Scott-Kassner, 2006). 유아의 생활 자체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은 신체 및 음악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폭 넓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잠재되어있는 유아의 성격이나 자질 등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유아기에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은 유아의 음악성 발달 및 사회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표현의 발달, 창의성 증진(김미영, 김경숙, 2007; 김미정, 이숙희, 2008; 박은영, 2009; 배희진, 2009; 황인주, 김은정, 2010)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한다면 유아를 위한 다양한 음악적 접근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에는 유아들이 음악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활동, 즉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창작, 감상 등을 고르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유아들의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각자가 다양한 음악활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심미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포괄적 음악교육을 유도하였다(Mark, 1977). 이러한 포괄적인 음악활동은 유아의 음악적 감각, 음악적

소양, 음악의 기초적인 개념을 익힐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기쁨, 슬픔, 즐거움 등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언어적 표현력이 미숙한 유아들이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음악수업을 통해 사회성, 협동성 등을 기를 수 있으며 악기 연주와 신체활동 등을 통해 대·소 근육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기의 음악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유아의 음악적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유아교사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미국의 경우 음악교육내용 기준(MENC: Music Educator National Conference, 1994)이 있어 교사들이 영역별로 자세히 기술되어있는 기준으로 유아에게 적절한 음악교육내용을 제시하며 교사가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yo, 1999).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국가수준의 음악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특정한 유형의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균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김소향, 안경숙, 2009). 유아교사들은 이러한 음악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연간 및 월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주간 계획 및 일일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 관심, 요구, 계절 등을 고려하여 활동을 실행하게 된다. 음악교육의 실재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진성, 문혁준(2006)은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이 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와 실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아 교사에게 조사한 결과,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음악교수의 실제 간에는 상호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아교사의 음악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음악교수의 실제도 높아짐을 밝히고 있어 다른 선행연구들(김은심, 박수미, 2003; 배미양, 2001; 이민정, 2002; 조부경, 서소영, 2001)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교사의 음악 교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사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방안제시를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의 태도, 음악교수의 실제에 대한 양적 연구이기에 음악교수실제에 대하여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엄정애, 송정, 박미경(2009)은 유아 교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음악교육의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알아보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음악교육활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음악교육의 현 모습과 교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며, 음악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교사의 어려움을 교사의 음악적 관심과 자신감의 부족, 음악적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음악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자원의 부족으로 보았다. 하지만 음악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라기보다 음악교육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 음악교육의 실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악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음악교육 활동으로 보고 있어 음악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소향, 안경숙(2009)은 유아교사의 음악 교육내용 영역 구성과 접근 및 교수방법을 조사하여 교수방법의 실행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내용영역은 노래 부르기이며, 유아교사는 음악적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음악 교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태도와 음악적 개념을 고려한 교수방법의 연구와 유아교육 현장의 음악교육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영애(2009)는 유아교육기관의 음악교육 실태 조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유아음악교육의 실제와 교사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 대상 질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노래 부르기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음악을 지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수방법의 아이디어 및 교재의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노래지도 이외의 다양한 음악적 접근을 통한 교수방법과 구체적인 유아음악 교육과정 모형의 제시와 시행, 평가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Nardo, Custodero, Persellin & Fox(2006)의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사는 주 4~5회의 음악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된 수업 시간은 15분~30분 정도였다. 유아교사는 자신만의 교과과정을 운영하였

으며 상업적으로 설계된 음악프로그램은 6%만 사용하였다. 음악교육내용은 노래 부르기, 움직이기, 악기연주하기, 창작하기 및 음악에 반응하기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위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의 본질은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에 의하여 좌우되며, 이것은 음악교육내용과 방법의 적용을 통해 음악 경험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이민정, 2002).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사가 생각하는 음악교육의 의미와 음악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음악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교육내용을 어떻게 계획, 실행, 평가하는지 살펴보고, 현장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음악교육의 구체적인 교수방법과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에서의 음악교육에 관한 교수 실재를 통해 유아의 음악적 발달에 적합한 균형 있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유아교사의 음악 교수 실재는 어떠한가?
3. 음악교육 교수 실재에서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10인을 유아교육기관의 유형, 교사 경력,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으며 유아 교사의 음악교육에 관한 인식과 수업의 실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에 대한 심층 면담과 관찰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었으며, 만 3-5세 담임교사이다. 그 중 교사 2인의 음악활동을 2회씩 관찰하였으나 각 활동유형별로 교수법이 거의 유사하게 관찰되어 다른 교사 4인의 음악활동은 각기 다른 활동유형별로 1회씩 관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총 6인 교사의 음악활동을 총 8회 관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연구 참여자	유아교육기관	연령(경력)	학력
A 교사	병설 유치원	35세(9년)	대학원졸
B 교사	어린이집	29세(7년)	3년제졸
C 교사	어린이집	29세(3년)	3년제졸
D 교사	사립유치원	34세(9년)	대학원졸
E 교사	어린이집	29세(5년)	4년제졸
F 교사	어린이집	28세(4년)	4년제졸
G 교사	어린이집	26세(3년)	3년제졸
H 교사	어린이집	29세(5년)	3년제졸
I 교사	사립유치원	28세(4년)	4년제졸
J 교사	사립유치원	24세(1년)	4년제졸

2. 자료 수집

1) 교사 심층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기간은 2010년 10월 11일~12월 3일까지 총 8주였다. <표 1>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10인은 1~2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한 회당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

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기록하였으며,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다. 면담은 주로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음악수업의 실행 및 평가, 음악교육내용, 음악수업에 대한 어려움 등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질문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였다.

2) 수업 관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계획을 설명한 후 동의하에 연구 참여자의 음악수업 관찰을 면담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교사 10인에게 연구계획을 설명한 후 관찰허락을 받은 6인의 음악수업을 관찰하였으며, 관찰시간은 주로 음율 활동을 진행하는 대그룹시간에 이루어졌다. 교사가 원래 계획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간교육활동계획안, 일일활동계획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관찰된 내용을 현장기록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질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관찰된 음악활동은 비디오 촬영 및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관련 자료를 대조하며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유형	사용된 방법과 자료	수집된 자료
심층면담	참여자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비구조적, 반구조적 인터뷰를 실시하며 녹음함	녹음자료 전사본
관찰	참여자의 수업활동을 기록하며 관찰하며 비디오 촬영함	비디오 촬영자료 현장기록노트
문서탐색	연구 참여자의 관찰된 수업의 주간 교육활동계획안, 일일교육활동계획안	주간교육활동계획안 일일교육활동계획안

3. 자료 분석 및 해석

참여 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었다. 연구자의 현장 기록 노트와 연구 참여자의 수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비디오 촬영 자료 및 면담 자료, 월간, 일일 계획안을 분석하여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계획 및 실행, 평가를 비교해보며 연구 참여자의 음악 수업 실체를 알아보고, 면담자료를 반복해 읽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주제별로 코딩하는 작업을 거쳤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이후에 예비 범주를 만들고 분류한 후 다시 최종적으로 범주를 완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범주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음악교수실제, 음악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범주로는 음악교수실제는 수업의 계획, 실행, 평가로 나타났으며, 음악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부족,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려움, 음악관련 연수 참여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유아교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악적 경험을 음악교육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가장 많이 하는 음악활동은 새 노래 부르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이상 대그룹시간에 새 노래 부르기를 하였으며 생활주제에 맞추어 노래를 선정하였다.

음악수업은 아이들과 이야기나누기를 하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수업이라고 정해서 한다가보다 아이들과 같이하는 작은 율동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끼리

흥얼거리는 노래까지 아이들의 모든 음악적 경험이 모두 음악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해서 하는 음악수업은 아무래도 제일 하기 쉽고 편한 활동이 반주와 함께 노래 부르고 손 유희하는 활동이라서 주로 하고 있어요.

(2010. 11. 18. E교사 면담자료)

하루 중에 일어나는 음악과 관련된 활동은 모두 음악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집중할 때 하는 손 유희도 일종의 음악수업이고, 아이들이랑 같이 새 노래 부르기와 정리할 때 '모두 제자리' 노래를 부르며 정리하는 것, 규칙을 정할 때나 주의 집중을 할 때 말 리듬을 하는 것도 모두 음악활동이라고 생각해요.

(2010. 11. 16. C교사 면담자료)

교사들의 음악 교육에 대한 생각은 위 사례의 E교사와 C교사처럼 유아에게 일어나는 음악적 경험은 모두 음악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이 활동이나 주의집중을 위한 손 유희, 말 리듬, 배경음악까지도 음악활동의 범주로 생각하였다. 교사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찰을 통하여 말 리듬의 경우 유아와 교사간의 약속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노래를 부르며 정리하는 활동 또한 음악을 정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과의 수업 중 음악적 요소가 들어간 모든 활동을 음악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을 듣고 활동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과 새 노래 배우기는 매주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되도록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이 더 부르고 싶어 하면 계절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등 다양한 노래를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2010. 11. 25. I교사 면담자료)

음악 수업을 따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생활 주제에 맞추어 새 노래 부르는 것은 매주 진행하고, 음율 영역에 음악 CD를 배치하여 아이들이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시간 시간마다 새 노래 뿐만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접하면서 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2010. 11. 11. B교사 면담자료)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 악기 연주, 감상이 모두 음악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활동에 비해 노래 부르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요. 특히 일주일에 한번 새 노래 부르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활 주제에 맞춰 새 노래 부르기를 주로 하게 되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흥미도 훨씬 높아지고 재미있어 해요.

(2010. 11. 4. G교사 면담자료)

교사들은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보다는 생활주제와 관련된 노래 부르기 중심의 활동을 음악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음악교육의 목적이나 음악적 개념과 같은 음악교육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노래 가사를 통해 생활주제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음악활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2. 유아교사의 음악교수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교수실제를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계획과 실행은 새노래 부르기 위주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는 유아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질 뿐 교사 자신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 계획하기

관찰한 교사의 일일 또는 주간 계획안을 살펴보면 모두 새 노래 부르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안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을바람’ 새 노래 부르기와 ‘나뭇잎이 떨어져요’ 신체표현하기(A교사, 2010. 10. 29. 계획안), ‘기린이랑 사슴이랑’ 새 노래 익히기와 리듬악기연주하기(B교사, 2010. 11. 11, 계획안), ‘몰래 들어와서는’ 새 노래 부르기(E교사, 2010. 11. 18, 계획안), ‘비행기’ 새 노래 부르기 및 신체 표현하기(C교사, 2010. 11. 16, 계획안), ‘겨울 바람’ 새 노래 부르기(J교사, 2010. 12. 2. 계획안), ‘시장놀이, 새 노래 익히기(I교사, 2010. 11. 25. 계획안)로 새 노래 위주의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아래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

교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을 참고하여 생활 주제에 따른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나 음악활동의 계획은 교육과정 및 지도서 및 유아교육관련 잡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악보 및 음원 파일, 그리고 수업 적용 후기 등을 통해 교사는 활동의 계획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유치원교육과정으로 생활주제에 맞추어 계획을 하는데 지도서에 있는 활동을 그대로 하기 보다는 아이들과 다양하게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게 되요. 그래도 되도록 생활주제, 소주제에 맞추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0. 10. 29, A교사 면담자료)

우선 연간 계획안을 짤 때에는 표준보육과정을 참고하고, 주간 계획안은 다른 교사와 상의하여 짤 때도 있고, 보육프로그램이나 유아교육관련 잡지를 많이 이용해요. 하지만 한 눈에 보기 편하고 활동 예시도 자세히 나와 있어 손쉽게 활용하기 쉬운 유아교육관련 잡지를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2010. 11. 11, B교사 면담자료)

동요집이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연간 주제에 따른 노래들, 생활 주제별 지도서나 인터넷 검색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악보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편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교사는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이야기를 써 놓은 경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활동도 해보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010. 11. 19, D교사 면담자료)

위의 면담 사례들에 의하여, 유아교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생활 주제에 따른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나 음악활동의 계획은 교육과정 및 지도서 및 유아교육관련 잡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악보 및 음원 파일, 그리고 수업 적용 후기 등을 통해 교사는 활동의 계획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는 연간계획에 따라 새 노래를 선정하고 선정된 노래의 가사를 잘

익히기 위한 손 유희나 가사 바꾸기 등의 활동을 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다른 교과와의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악활동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전이활동 및 주의집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음악의 본질적인 교육내용인 음악적 요소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행하기

교사들의 음악 교육활동은 주로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감상하기로 나타났으며, 악기연주나 신체표현의 경우 독립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새노래 부르기를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사용되었다.

노래 부르기

음악 활동 중에서 노래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신체 악기인 목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유아가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음악활동인 동시에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음악활동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유아 교육 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은 노래 부르기였으며, 새 노래 부르기가 음악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사는 노래 부르기 지도가 가장 익숙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마다 활동 유형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저는 새 노래 부르기를 주로 하는데요. 새 노래 부르기를 할 때 처음에는 노래를 한번 듣고 나서 예를 들어 '아'나 허밍으로 불러보고 음을 어느 정도 익히면 가사로 한소절씩 불러보게 해요. 바로 가사로 부르니까 아이들이 음을 잘 맞추기 어려워해서 한 소리로 먼저 부르고 익숙해지면 가사로 부르니까 훨씬 노래를 부드럽게 잘 부르는 것 같아요.

(2010. 11. 18. F교사 면담자료)

새 노래의 경우 주로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선정하게 되요. 가끔은 수업하다보면 너무 단조로운 리듬의 노래는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져서 창작동요를 많이 부르는 편이에요. 아이들의 음역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노래가 예쁘고, 아이들이 창작동요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부르는 편이에요. 음이 너무 높아 아이들이 가끔은 부르기 힘들어하긴 해요. 쉬운 노래의 경우에는 주로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등 확장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요.

(2010. 11. 25. I교사 면담자료)

이처럼 노래 부르기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는 도입 부분을 동화나 이야기로 접근하여 유아의 흥미를 끌어내어 노래를 먼저 한 번 들려주었다. 한번 듣고 난 후 ‘아’ 나 ‘랄랄라’와 같이 한 소리로 불러보고 새 노래판의 가사를 한 소절씩 따라 부르기를 하며 노래를 익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교사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이나 음역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주제에 맞는 노래를 선정하였다. 교사가 주제에 맞는 노래를 선정하다 보니 유아의 음역과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주제의 내용의 전달이 용이한 노래를 선정하여 가창활동위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생각하는 노래 부르기의 중요한 교재 교구중의 하나는 새 노래 판이었다. 교사들은 노래 부르기 만큼이나 새 노래 판의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림악보를 만들어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새 노래판을 이용한 확장활동으로 가사 바꾸어 부르기를 하였으며 이는 실제 수업 관찰에서도 매번 볼 수 있었다.

교사가 유아에게 노래 가사를 이야기로 들려준다.

‘기린이랑 사슴이랑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보인다. 다 숨었니?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어요. 기린은 목이 아주 길어요. 그런데 기린이 바위뒤에 숨었네요...(중략)...기린은 사슴이 어디있을까 찾아보았지만 사슴은 나뭇가지뒤에 숨어 잘 보이지 않았네요.’

동화를 듣고 유아는 교사의 노래를 들어본다. 노래를 듣고 난뒤 교사와 유아는 노래의 느낌과 재미있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본다.

유아는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랄랄라’로 노래를 부른다. 교사는 노래판을 준비하고 한소절씩 유아와 부른다. 여러번 노래를 부른 후 유아는 교사가 준비한 동물 가면을 쓰고 동물 흉내를 내며 기린과 사슴대신 다른 동물로 가사를 바꾸어 노래를 부른다.

(2010. 11. 11. B교사 관찰자료)

악기 연주하기

교실에서의 악기 연주는 주로 노래 부르기 활동의 연장 활동, 확장활동으로 많이 나타났다. 노래 가사말의 의성어나 의태어 부분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크게 부를 때 악기를 크게 연주하고 노래를 작게 부를 때 작게 연주하는 등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나뭇잎들이 나뭇잎들이 찰찰찰찰 놀이하는데
장난꾸러기 솔바람이 몰래몰래 들어와서는
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살살살 간지럽 태우고
술술술술 술술술술 술술술술 어느틈에 달아났어요.

유아들과 '몰래 들어와서는' 노래를 부른 후 교사는 '찰찰찰찰, 살살살살, 술술술술' 부분에 마라카스로 악기연주를 하며 노래를 들려준다.

유아는 마라카스를 연주하며 노래를 여러번 부른 후 노래를 크게도 불러보고 작게도 불러본다. 이때 악기도 크게, 작게 연주한다.

유아가 5명씩 앞으로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다른 악기로도 연주해 보고 노래와 어울리는지 이야기 해본다.

음악영역에 놓아두고 자유선택활동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2010. 11. 18. E교사 관찰자료)

교사가 실행하는 악기 연주는 먼저 악기소리의 탐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노래 부르기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빠르기, 셈여림 등과 같은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빠르기와 셈여림 이외의 음악적 요소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사는 합주를 할 때 악기편성 및 지도법, 그리고 새로운 악기의 연주법 등 악기 연주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저희 교실에는 멜로디언, 실로폰,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소고 등의 악기가 있어요. 주로 아이들 하고 노래를 부르며 박자에 맞추어 악기연주를 하거나, 느린대로 마음껏 표현해보기 등을 하죠. 아이들은 멜로디에 맞추어 악기 연주는 힘들어 해서 리듬에 맞추어 하는 악기연주나 노래 가사말에 따라 악기연주를 해보아요, 가령 의성어 의태어에 맞는 크고, 작게 또는 빠르고, 느리게는 악기연주로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2010. 11. 4. G교사 면담자료)

저는 악기 연주 활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악기의 연주법을 정확하게 몰라 아이들과 연주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박자에 맞추어 연주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쉽니 않아 늘 하던대로만 수업을 진행하게 되요.

(2010. 10. 29. A교사 면담자료)

또한 악기 연주는 특별한 날, 즉 발표회나 졸업식, 성탄축제 등의 행사를 위해 보여주기 위한 활동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악기 연주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연주회를 준비하는 형태로 거의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아의 음악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악기를 선정하여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이번 2학기부터 아이들과 장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책과 인터넷으로 찾아 아이들과 장단을 익히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30분씩 연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2학기에는 발표회가 있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하니까 흥미 있어 했는데 매일 같은 연습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2010. 11. 25. I교사 면담자료)

저희는 5세는 리듬악기, 6세는 실로폰, 7세는 멜로디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게이름을 익히며 연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들도 수준에 맞지않는 악기를 하느라 어렵고 힘들지만 저도 같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1인 1악기 연주하기'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하고 있죠.

(2010. 11. 4. H교사 면담자료)

신체 표현하기

신체 표현 활동은 노래 부르거나 감상 활동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신체표현 활동은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가사에 어울리는 울동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나 손 유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유아는 노래를 잘 익히게 되며 가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울동은 아이들과 가사에 맞추어 하는 것 같아요. 가사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서 동작을 만들어서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울동을 완성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울동도 잘 기억하게 되고 울동하면서 노래부르면 가사도 더 잘 익히고 이해도 잘 하는 것 같아요.

(2010. 11. 4. G교사 면담자료)

유아교사는 신체 표현을 통하여 유아가 다양한 음악을 접함으로써 음악적 개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동작교육으로 확장하여 실행하였다. 그리고 교실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외 놀이로 확장하여 실행되기도 하였다. B교사의 면담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아이들은 듣고 움직이는 신체 표현 활동을 좋아하며 선호하였다. 하지만 교사의 기호에 따라 신체 표현의 방법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의 교사는 활동적인 음악수업을 많이 하였으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교사의 교실에서는 손 유희와 같이 앉아서 하는 활동만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A교사는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가 자연스럽게 음악을 경험하며 유아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음악에 반응하는 활동으로 음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교수법의 다양한 접근 방법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신체 표현 활동의 경우 주제에 맞추어서 동물 흉내 내보기라든지 아니면 스카프나 리듬막대 등을 이용하여 음악에 맞추어 빠른 음악에서는 빨리 움직이고, 느린 음악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신체 표현의 동작의 경우 동작 카드를 이용하여 그 동작에 따라 활동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 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음악 활동에 있어 교사의 성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음악 활동을 잘 좋아하지 않는 동료 교사들은 확실히 음악 활동의 시간 비율이 적더라고요. 전 음악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제가 좋아하니까 많이 하는 편이에요.

(2010. 11. 11. B교사 면담자료)

새 노래 부르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해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신체 표현의 경우 한 번도 못할 때가 많아요. 거의 한 달에 한번도 정말 제가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손유희나 율동도 신체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학기에 오르프 연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때 신체 표현에 대해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체 표현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매번 뜻대로는 잘 되지 않아 실제 수업에서는 많이 하지는 못해요.

(2010. 10. 29. A교사 면담자료)

감상 하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된다. 이렇게 듣는 활동은 무의식중에도 들리는 ‘그냥 듣기’와 ‘집중해서 듣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유아 교육기관의 교실에서는 이 두 가지의 듣기 활동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아침에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할 때, 낮잠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활동은 ‘그냥 듣기’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음악 영역에 음악을 배치해 놓아서 아이들이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예요. 시간 시간마다 새노래 뿐만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접하면서 노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예요. 그래서 저는 동요 위주로 들려주고 있어요.

(2010. 11. 11. B교사 면담자료)

간식시간이나 점심시간, 자유선택활동시간 등에 틀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의식중에 들으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음악을 들려주지 않을때도 자기네들끼리 음악을 서로같이 모여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2010. 11. 4. G교사 면담자료)

또 하나의 듣기 활동은 주의를 집중하여 들음으로써 소리 변별이나 음악적 요소를 알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감상 활동은 음악적 요소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활동으로 유아는 잘 짜여진 음악을 들으며 박을 느끼고 형식, 셈여림, 빠르기, 조성 등의 음악적 요소를 느끼고 알 수 있는 활동이다(김미영, 김경숙, 2007; 배희진, 2009). 교사들은 유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느낌을 이야기하게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와 다른 유형의 감상 활동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감상 활동은 주제에 맞게 음악을 선정하여 먼저 들려주고, 작곡가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곡에 대한 설명, 시대적인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고나서 음악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더 기억을 잘하고 지루해 하지 않았어요. 오래 듣기를 힘들어 할 때는 몸을 박자에 맞추어 움직여 보거나 손뼉을 치기도 해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나서 또는 들으면서 느낌을 그려보거나 그 그림의 제목을 붙여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0. 12. 2. J교사 면담자료)

편안한 환경에서 음악을 들려주고 ‘느낌은 어때니?, 무슨생각이 나니?’로 물어보거나 음악의 느낌을 그려보라는 활동을 언젠가 학교 때 제가 경험했었는데 저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느낌을 그려보라는 막연한 제시는 방법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0. 11. 19. D교사 면담자료)

이와 같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실제에서 실행하기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신체 표현, 감상의 4가지 활동 유형이 모두 나타났으나 노래 부르기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부분 노래 부르기를 위한 악기 연주, 신체 표현의 활동이 많았으며, 교사는 각 활동마다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교사는 음악적 이해 및 지식의 부족으로 교수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었으며 익숙한 노래 부르기 위주의 수업을 되풀이 하여 실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3) 평가하기

유아의 음악 교육에 있어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교사이다 (Kindall-Smith, 2010; Schmidt, 2009). 교사의 음악 수업에 대한 평가는 유아 교사의 음악적 자질과 교수 능력의 향상 및 음악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교사들은 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사자신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음악교육과 관련된 적절한 평가도구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교사는 음악 수업에 대하여 '수업이 만족스럽다', '노래 부르기 활동이 즐거웠다' 등과 같이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만을 실행할 뿐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한 평가는 수업태도, 이해정도, 느낌을 이야기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 평가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다만 유아평가는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문항들 중 그 문항을 다 할 수는 없고 느낌 이야기정도만 해요. 이야기나누기 같은 경우는 O, X퀴즈나 골든벨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지만 음율 활동의 경우 느낌 말하기나 제 상영 즉 다시 보여주기 등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10. 10. 29. A교사 면담자료)

특별히 음악 수업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하지는 않고, 수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로워 하면 그냥 만족스럽고,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보완점을 생각 해 보기는 하지만 평가라는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2010. 12. 2. J교사 면담자료)

3. 유아교사의 음악교육 실행에 대한 어려움

유아 교사가 음악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려움, 음악관련 교사연수 참여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1)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유아교사는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음악 교수 방법과 음악적 지식의 부족으로 생각하였다. J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유아교사는 음악교육내용을 수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음울 활동을 위한 수업준비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였으며 음악수업에 대한 자신감부족을 피아노 반주실력의 부족함이라고 여겼다.

대부분의 교사는 음악내용지식인 음악적 개념을 활동에 접목하여 교수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러한 어려움으로 수업에 음악적 개념에 관한 활동을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교사도 있었다. 또한 시도를 하더라도 유아에게 적절한 음악적 경험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 관찰에서도 음악적 개념을 다루는 음악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저는 음악의 다양한 접근법을 몰라 많이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음악적 개념이나 음악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 적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음울활동을 준비하려면 다른 수업에 비해서 수업준비가 더 힘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즈음은 피아노를 따로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에 자신이 없으니까 음울 활동이 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2010. 12. 2. J교사 면담자료)

음악교수실제에서 느끼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교사는 교수법의 다양한 적용을 들고 있다. 유아교사는 획일화된 ‘새 노래 부르기’ 위주의 음악교육이 아닌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오르프, 유리드믹스, 코다이 등과 같은 음악교수방법을 생소하게 여겼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은 음악이라는 영역을 전문 분야로 생각하였으며, 음악수업은 전문적인 멘토의 멘토링을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음악 활동을 항상 다양하게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초임때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수업을 하려고 많이 했었죠. 하지만 뜻대로 수업 진행도 어려웠지만 점점 갈수록 획일화된 수업 진행이 싫었어요. 매일 새 노래 부르기와 율동을 하고, 다르게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니 하기가 힘들어요. 과학처럼 음악도 전문 분야로 생각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0. 10. 29. A교사 면담자료)

2)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려움

유아 교사들은 항상 익숙하게 해 오던 수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교사는 매번 새노래를 익히고, 새노래판의 노래가사를 유아와 함께 읽고 가사에 어울리는 동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음울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즐거워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하여 반복적인 노래 부르기와 손유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대학교 때 배울때도 새 노래 판을 만들어서 노래 가사를 우선 읽어보고 그에 따른 음악을 들려줘보고, 한 소절씩 불러보고 그런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실습 갔을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음악 수업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 경력이 쌓이니까 수업의 계획도 이전에 했던 활동이나 재미있었던 활동을 반복해서 할 때가 많아요.

(2010. 11. 4. H교사 면담자료)

유아교사 양성기관과 예비교사 교육 실습에서의 음악교육 교수 관련 경험이 교사의 음악 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영향을 미치며 교수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사는 자유로운 신체 표현과 소리 탐색 등 소리나 동작을 동반한 음악 활동으로 인하여 분주한

교실 상황을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음악 활동의 관찰을 통해 대부분 대그룹의 이야기나누기 형태로 유아가 앉아서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노래 부르기와 악기연주, 신체표현 활동 모두 유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나 앞으로 몇 명씩 나와 활동하는 등 교사는 공간적으로 유아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음악 활동은 동적인 활동들과 연관이 되고 악기를 다루는 활동은 자칫 잘못하다보면 산만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에 맞춰 돌아다니고 싶어해요. 하지만 그런 분주해 진 상황을 제가 견디기 힘들어 악기의 소리를 탐색하거나 하는 활동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하라고 할 때가 많아요.

(2010. 11. 18. F교사 면담자료)

3) 음악관련 교사연수 참여에 대한 어려움

유아교사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교사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음악 교수 방법에서 교사의 재교육은 꼭 필요하며 재교육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음악 교수 방법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은 특정한 한 악기를 배우기 위한 연수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음악교육의 기초적인 지식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아음악관련 교육은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다양한 교수법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악기를 두드리고 문지르는 등 악기소리의 탐색 뿐만아니라 유아에게 올바른 악기연주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연수를 통해 많은 악기의 종류와 연주법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교사연수는 음악 교육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작년이 여름에 들었던 오르프 연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들은 것은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준비물과 원의 상황은 어려워도 융통성 있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활용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강사 혼자 시범만 보이며 진행하거나 지나치게 이론만을 강조하는 연수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음악은 대규모 연수보다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연수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카리나와 같이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연수나 예전부터 계속 해 오던 연수보다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연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의 새로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음악은 더욱 그래요. 그리고 다양한 악기와 악기연주법에 대해서도 연수를 통해 많이 익힐 수 있었어요. 사실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악기도 있었거든요.

(2010. 10. 29. A교사 면담자료)

병설유치원의 경우 직무연수가 점수화 되어있어 연수 참여율이 높지만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공립 교사에 비해 연수 참여율이 낮았다. 교사들은 연수에 참여하고자 해도 유아교육기관의 수업이 마치고도 전에 연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수 참여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장이 연수를 받고 그 내용을 교사에게 그대로 교육하는 전달연수형태로 진행하는 기관이 많았다. 하지만 음악교육의 경우 교사가 직접 음악을 경험하고, 듣고, 연주하며, 느낀 감정을 수업에 적용하는 데 비하여 전달연수는 효과와 활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는 방학이 짧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승급교육 이외의 연수는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연수의 경우 공립 유치원만 점수화 되어 있어 공립 교사들은 어떻게든 연수를 듣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점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육청 연수의 경우 2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가기가 힘들어요. 듣고 싶은 연수가 있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나 원감님이 가셔서 들으시고 전달 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듣는 것과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 잘 적용이 안되는 편이에요.

(2010. 11. 19. D교사 면담자료)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심층면담을 통해 음악교육내용을 어떻게 계획, 실행, 평가하는지 살펴보고, 교사의 음악 교수 실제를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음악교수를 위한 현장의 요구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 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교수실제는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로 나타났다. 유아교사는 유아가 경험하는 모든 음악적 경험을 음악교육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전이 활동이나 주의집중을 위한 손 유희, 말 리듬, 배경음악까지도 음악 활동의 범주로 생각하였다. ‘계획하기’를 살펴보면, 유아교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생활주제에 따른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지만 음악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과정의 활동 지도서나 유아교육관련 잡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교사가 음악교육 자체로서의 의미와 유아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유아에게 더욱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MENC(1994)의 경우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한 음악활동을 음악교육내용으로 선정하여 표준화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기관의 계획안에 나타나있는 음악교육내용은 ‘새 노래 부르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교육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인 음악적 개념이 많이 빠져있어 유아에게 적합한 음악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행하기’의 경우 음악교육내용 중 음악 활동 유형에 속하는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 감상하기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음악교육 현장의 연구에서 신체활동, 노래 부르기, 감상하기, 악기 연주하기로 나타난 결과(Kenney, 2004; Yim & Ebbeck, 2009)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음악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관찰된 대부분의 수업 실재는 새 노래를 배우고 노래의 가사에 따라 울동을 만들어 신체 표현활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박자나 가사에 따라 악기 연주를 하며, 앞으로 부를 노래나 불러보았던 노래를 간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들려주어 노래를 잘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음악교육의 영역 내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노래 부르기를 위한 보조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노래 부르기 활동을 음악수업이라고 생각하여 새 노래 부르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악기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감상하기 등의 음악교육활동에 음악적 개념을 다양하고 고르게 통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하기’는 음악교육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 음악교육에서 교사의 교수 능력과 음악적 자질은 빠져서는 안되는 요소(박은영, 2009)이며 교사의 음악적 자질 및 교수 능력은 평가 없이 향상될 리 없다. 이러한 결과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정형화된 음악교육에 대한 평가도구의 개발로 교사는 음악교수능력을 스스로 평가해 봄으로써 자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유아음악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탐구하며 유아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봄으로서 음악교육의 목적에 이를 수 있을 것이며(Kindall-Smith, 2010), 이러한 평가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음악교육내용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교사의 음악교육 실행에 대한 어려움으로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려움’, ‘음악 관련 교사연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음악교육 내용 지식의 부족과 교수 방법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악기지도의 어려움, 음악적 개념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수업의 관찰에서도 음악적 개념을 다루는 음악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교사들은 현재 음악교육의 흐름이나 방향을 알기보다 예전부터 유아교육기관에서 해오던 대로 익숙한 교수 방법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교사 양성기관의 음악교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사양성대학교의 음악교육관련 개설 과목을 살펴보면 유아음악교육, 기악 또는 반주법, 유아국악교육, 동작교육 등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개설 과목 중 유아음악교육과 기악의 강의계획서에 의하면 동요 즉 노래 부르기의 음악교육내용이 다른 음악교육내용보다 비중이 높았다. 특히 1-2년에 걸쳐서 개설되는 기악이나 반주법은 동요 반주를 위한 피아노 반주 수업이 대부분이므로 예비교사때부터 노래 부르기 위주의 수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 양성기관에서부터 유아음악교육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유아교사는 예전부터 해오던 음악수업

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음악활동으로 인해 분주한 교실 상황을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수업의 특성상 정형화 되어있기 보다 움직임이 크고, 걷고 뛰는 등 표현이 자유로우며 소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아 교실에서의 규칙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아교사는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유아교사는 음악교육에 있어 연수는 꼭 필요하지만 연수를 받기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음악관련 교사연수의 어려움’으로 나타내었다. 교과과정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교실 내의 변화’(Davies, 2008)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과과정 및 교실에 변화를 미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기획의 제공이 시급하며 장학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음악 수업의 실재를 관찰을 통하여 교수 실재를 분석하여보고 음악 수업의 실행에 대한 어려움을 교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수업의 교수 실재를 관찰과 교사 면담을 통해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음악 활동유형 각각의 교수 실재는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신체 표현, 감상하기의 각각의 활동유형에 따른 교수 실재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유아 교실의 음악 교수 실재를 살펴본 연구이므로 향후 영아 교실의 음악 교수 실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미, 조대현 (2009).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 근거한 표준보육과정 내 음악활동의 내용분석과 재구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1-22.
- 구미란 (2005).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교육환경과 교육의 실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김경숙 (2007). 신체움직임을 통한 음악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연구**, 33, 111-137.
- 김미정, 이숙희 (2008). 통합적 음악감상 활동에 기초한 유아의 정서지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443-467.
- 김영연 (2002).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 _____ (2009). **개정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 김은심, 박수미 (2003). 유치원교사의 동작교수 효능감에 따른 동작교육에 대한 태도 및 교수실제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242-266.
- 김지영 (2008). 유아음악활동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17(3), 389-397.
- 남소현 (2006).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현직교사의 인식 및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9). 악기를 활용한 표현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신체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36, 59-83.
- 박은영 (2009). 유아교사의 음악교수능력 평가도구 개발. **음악교육연구**, 37, 35-59.
- 박진성, 문혁준 (2006). 유아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음악 교수의 실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 9-19.
- 배미양 (2001). 유치원 교사들의 과학에 대한 불안, 태도, 교수효능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희진 (2009). 음악적 요소 중심의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 및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3(2), 91-114.
- 안경숙, 김소향 (2009). 음악 교육내용 영역에 따른 유아교사의 교수방법 실제에 대한 분석 연구. **음악교육연구**, 36, 29-58.
- 안재신 (1994). 상상력 개발을 위한 유아기 음악교육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 교사를 통해 본 유치원 현장의 음악교육과 실행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9(1), 133-158.

- 여성가족부 (2007). 표준보육과정.
- 윤소연 (2003). 학령기전 아동의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정 (2002). 음악활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교수실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0, 19-38.
- 이숙희 (2005). 통합적 유아 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407-430.
- 이영애 (2009). 유아음악교육 실제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교사교육의 방향. **유아교육학논집**, 13(6), 167-186.
- 이인원, 김일영 (2005). 유치원 일일 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음악교육내용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319-334.
- 조부경, 서소영 (2001). 유치원 교사의 과학 교수 효능감에 따른 과학 교수 실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3), 622-634.
- 최지원 (2009).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용 유치원 지도서의 유아음악활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주, 김은정 (2010). 유아의 놀이성이 음악적 성향과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5), 55-78.
- Campbell, P. S. & Scott-Kassner, C. (2006). *Music in Childhood: From Preschool through the Elementary Grades*(third edition). Schirmer.
- Yim, H. Y. B. and Ebbeck, M. (2009). Children's Preference for Group Musical Activities in Child Care Centres: A Cross-Cultural Stud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 103-111.
- Davies, L. (2008). Curriculum change: an exploration of its impact upon school music in Scotland between 1978 and 2000. *B. J. Music Education*, 25(1), 77-90.
- Kindall-Smith, M. (2010). Is There Musical Meaning in the Musical? *Music Education Journal*, 96(3), 35-38.
- MENC (1994). *The School Music Program: A New Vision*.

<http://www.menc.org/resources/view>

- Mark, M. L. (1977).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현대의 음악교육 (이홍수, 임미경, 방금주, 김미숙, 장기범 공역). 세광음악출판사.
- Schmidt, P. (2009). Reinventing from Within: Thinking Spherically as a Policy Imperative in Music Education. *Art Education Policy Review*, 110(4), 39-47.
- Nardo, R. L., Custodero, L. A., Persellin, D. C. & Fox, D. B. (2006).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A Report o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Accredited American Preschool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4(4), 278-292.
- Byo, S. J. (1999). Classroom Teachers' and Music Specialists' Perceived Ability To Implement the 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2), 111-123.
- Kenney, S. (2004). The Importance of Music Centers in the Early Childhood Class. *General Music Today*, 18, 28-33.

ABSTRACT

A Study on Music Teaching Practice of Kindergarten Teachers

Yoon, Ji-Young · Lim, Seung-Ry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ontents of music education are planned, executed, and assess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kindergarten teachers as well as to analyze specific teaching methods by observing kindergarten teachers' music teaching practi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music education as 'singing a new song', 'transition activity', and 'tool for attention'. As for the practice of music teaching, kindergarten teachers mainly directed 'singing a new song' during the group time. In addition to that,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and body expression were also conducted as a related exercise of a new song while assessments of classes were not made in general. Kindergarten teacher mentioned some difficulties about the music education ; They were lack of knowledge to music education. Itself, little understanding in teaching methods, uneasy to practice of new teaching methods and little chances to participate in special music training courses for teachers. In conclusion, above findings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effective music teaching methods fo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contents,
Music teaching practice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3일(3월 23일), 게재확정일: 4월 13일